

설치작가 양혜규의 어제와 오늘 자연·인간·공동체 ... 리움서 본다

초기작 '창고피스'부터 신작까지
짚풀 사용한 토템 등 35점 전시

“리움이 민속박물관을 차렸나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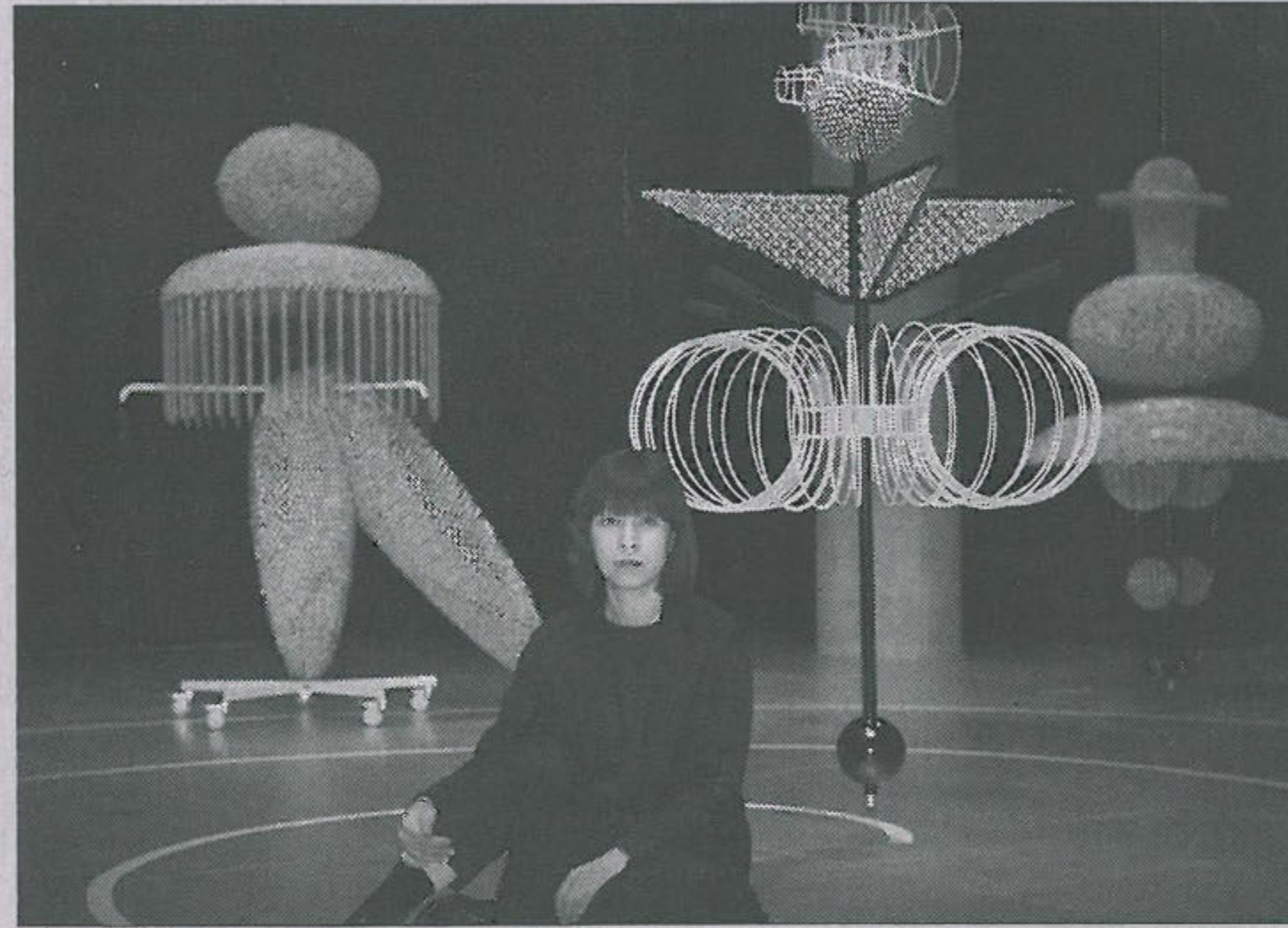
담당 큐레이터의 말대로, 짚을 엮어 만든 작품들이 뿜어내는 향토적 기운이 오히려 낯 설다. 양혜규(44)는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전시장에 러시아의 이슬람 사원 라라 툴판,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등 종교 유적의 축소판을 세웠다. 신작 '중간 유형' 시리즈다. 작가는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짚풀 토템 형상을 전시장에 끌어들었다. 인류의 보편성, 민족의 개별성을 성찰하는 뜻이다. <관계기사 1월 6일자 22면>

양혜규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가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린다. 조각·설치·영상 등 35점은 작가의 초기작 '창고피스'(2004)부터 대표작인 블라인드 설치, 방울과 짚을 이용한 신작 등을 망라했다. 베니스 비엔날레(2009), 카셀 도쿠멘타(2012) 등 유수의 국제전에 출품된 작

품들을 소식으로만 접해 왔던 국내 관객들에게 반가울 전시다.

전시작들은 설치 미술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장관의 정점과 저점을 오간다. 그라운드 갤러리에는 짚풀 설치 외에 K팝 스타 '빅뱅'의 탑(최승현), 미술가 박찬경, 주한 미국·프랑스 대사 등으로부터 의자와 탁자를 빌려와 공동체를 구현한 관객 쉼터 'VIP 학생회'도 있다. 위층 블랙박스에는 블라인드로 이뤄진 미로 '성채'(2011)와 수많은 방울을 매단 풍보 발레리나 형상 조각들 '상자에 가둔 발레'(2013/2015)가 전시된다. 블라인드 사이에선 향기가 분사되고, 방울은 선풍기 바람에 딸랑인다.

전시 제목은 조지 오웰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와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서 착안했다. 두 작품에서 코끼리는 인간이 파괴하는 순수한 자연이자, 인간의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한 강력한 자연이다. 프랑스에 콜 데 보자르의 니콜라 부리오 학장은 전시 도록에 “양혜규의 작품은 풍부하면서도 이질적이며, 세계화를 문제시하고 인간과 기술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평했다.



방울 조각 연작 '상자에 가둔 발레'(2013/2015) 앞에 앉은 양혜규.

[사진 리움]

양혜규의 오늘을 만든 초기작 '창고피스'도 전시됐다. 맥주 박스, 플라스틱 의자 따위를 쌓아올린 잡동사니 탑 속에 그의 초기작 23점이 꼭꼭 포장돼 들어 있다. 양씨는 팔리지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 전시해야 했던 11년 전을 돌아봤다. “나 역시 보이지 않는 곳의 무명 작가였다. 제 몸도 못 가누는 젊은 작가들에게 작품이란 먹여 살려야 할 가족 같은 존재다. 더 이상 이 작품을 끌고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포장해 쌓아둔 형태로 작품을 보인 뒤 폐기할 결심을 했다.” 런던의 갤러리에 내놓은 이 작품은 화제를 모았고 3년 뒤 독일의 소장가에게 판매됐다. 눈밝은 그 소장가는 양씨의 초기작을 한목에 소유하게 됐으며, 작가는 미술계의 시스템 안으로 진입했다. 겸손하고도 도발적인 이 작품은 오늘날 한국의 청년 작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성인 7000원. 02-2014-6901.